



2면

‘고층 해소·권익 보호’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오픈’

# 전주매일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음 6월 16일) 제25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기로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 올인”

### 조직위 사무소 개소... 송하진 위원장 의지 다져 홍보·마케팅 등 현장중심 업무 수행 본격 돌입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이하 조직위원회) 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조직위원회는 4일 전라감영로에서 조직위 현관 제막식과 함께 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송지용 도의회 의장, 정경선

체육회장, 김광호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회장,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경희 전북여성단체연합회 회장 등 체육계, 정계,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기원했다. 송하진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전북은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연이은 대규모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오면서 개최 역량과 기반을 다져왔다”며, “아태마스터스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적인 생활체육 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등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사무총장 3본부 5부 30명 규모로 시작, 2021년 7월부터는 3개 부를 추가해 3본부 8부 체계로 확대하고 인력도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무처는 향후 대회 추진 로드맵에 따라 대회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 개발 대회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선수단 유치,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모집, 교통·수송·숙박·음식·안전·방역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 기획,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MGA)와의 교류·협력,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대회 2년을 남기고 현장 중심의 업무 수행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4일 전주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1층에서(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 열린 2020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개소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관 제막식을 갖고 있다.

### ‘인권도시 전북’ 한 뜻 도·시군 인권정책협의회

전북도가 도내 인권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군 인권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도·시·군 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전북도정의 운영방향과 주요 인권시책 추진상황을 시·군과 공유하고 시·군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로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도(道)의 상담 조사체계를 소개했다.

시, 군에도 실제 ▲고충상담 창구 운영여부 ▲직원들의 상담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사건매뉴얼 작성 및 운영여부 ▲사전예방교육 여부 등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시스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의 인권익의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울 상반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교육·홍보 활동이 어려웠다면 하반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을 참고해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소규모로 다수에 걸쳐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 열경형 인권담당관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도정 주요 인권시책과 현안에 대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 장마 끝... 이젠 폭염과의 전쟁

###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외출 시물·양산 휴대 필수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1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

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20명(사망 0명), 농축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폭염특보 기간에는 마을방송과 예찰을 강화하고 폭염경보가 도내 6개 시·군까지 확대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

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에서 논, 밭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특보 발효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도우미의 예찰 강화와 함께 읍, 동 길거리 방송 마을별 방송시설을 활용해 폭염대책 행동요령의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현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 마을회관 등 5,117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2억 5,200만원

## 전주혁신도시·만성지구 미세먼지 저감숲 만든다

전주시, 2022년까지 100억 들여 10ha 규모 단계적 조성

최근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전주 혁신도시에 중국과 인근 산업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해 혁신동, 장동, 만성동 일원에 총 10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숲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주요풍향인 서남풍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남쪽부지와 농촌진흥청 서편부지 농수산대학 남쪽부지 등 3곳에 총 2.5ha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부지의 기존 가로수와 조경수는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나무 사이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탁월한 소나무와 측백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등을 심기로 했다.

특히 나뭇잎이 넓은 수종을 복층·다층으로 심고, 잎·줄기·가지 등 수목 접촉면을 최대화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오는 2021년에는 △염순근린공원 △농업공학부 동편부지 △혁신도시 내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2022년에는 만

성서로와 은고을로 완충녹지 일부에도 저감숲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날 중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미세먼지 저감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열섬현상도 완화시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설계용역사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혁신도시의 지형과 건축물의 배치 및 고도, 풍향과 기상, 계절에 따른 풍향 변화 등을 분석해왔다.

동시에 시민과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다문자단을 통해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소와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왔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해 대기오염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열섬현상과 폭염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원 도민안전실장은 “장마 후 본격적인 폭염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가능하면 낮 시간 동안에는 논, 밭일 등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길 당부드린다”며 “외출이 꼭 필요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챙이 넓은 모자 착용과 물병과 양산을 가지고 다니며 폭염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성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 로

진안고원의 여름여행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이 있는  
진안에 오면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 운일입반일입
- 길거리계곡
- 부귀 편백숲
- 인민의 길

NAVER 진안군 D+M 마이산